

회원사 동정

현대중공업

내화(耐火)형 부스덕트 개발

- 12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이카(Mica) 필름 사용



현대중공업은 최근 변압기와 배전반 사이에 전원을 공급·연결해 주는 내화(耐火)형 부스덕트(Bus-Duct)를 개발했다.

내화형 부스덕트는 600V급 이하의 저압용 부스관로로, 산업용 파워 연결 및 대형빌딩 등의 파워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장치이다.

이 제품은 부스 외부면에 1,2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이카(Mica) 필름을 사용해 화재시 누전방지 및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외함의 색상을 2원화하여 제품의 고급화를 이루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한국방재시험연구원에서 750도의 화염에도 견딜 수 있는 국제규격인 'IEC 60331' 내화시험을 거쳤다.

사상 최대 규모 발전설비 수주

-1천 메가와트 급, 발전플랜트 시장 확대 호기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수행한 발전소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로부터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사는 현대중공업이 초기 단계부터 발전소를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및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일괄도급(Turn Key)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수주한 공사를 통틀어 발전소로는 최대 규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에 인접한 4개 지역의 정유 및 가스플랜트에 필요한 전기와 증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이 발전소는 3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 150메가와트급 1기와 폐열회수 보일러 8기를 건설하게 되며, 200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설비를 납품해 200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수주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미쓰비시(MITSUBISHI) 등 세계 유수 발전설비 업체들과 경합을 펼친 끝에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행한 발전소 및 전기집진기 건설공사에서 입증한 공사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카타이프 화력 발전소를 인도했으며, 이후 2002년 방글라데시의 메그나가트, 하리푸르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어 수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인천공항, 현대석유화학, 현대전자 복합화력발전소 등 다수의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 한해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플랜트부문의 수주목표를 10억불로 세워 놓고,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동서발전 사회봉사단’ 사업소별 발대식 가져

- ‘사랑의 손, 희망의 빛’ 슬로건 아래 참된 이웃사랑 실천 결의

동서발전은 사회공헌 활동의 주축이 될 ‘동서발전 사회봉사단’의 지회단위 발대식을 13일부터 본사 및 사업소별로 거행하고,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들어갔다.

‘사랑의 손, 희망의 빛’ 이란 슬로건 아래 참된 이웃사랑 실천을 결의한 지회 발대식은 조직구성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봉사단기 수여, 봉사단 선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소별로 전 직원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울산지회 발대식에서 지회장인 주성철 울산화력 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안정적인 전력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오늘 봉사단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엔 희망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사로서의 힘찬 출발을 모두 함께 대내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은 성금 기부 형식과 봉사활동 참여 형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주축인 ‘동서발전 사회봉사단’은 본사지회를 포함하여 총 7개 지회, 72개 팀으로 구성, 전 직원의 참여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게 된다”면서, “각 사업소장을 지회장으로, 노조지부위원장이 부지회장을 맡아 서로 협력하는 등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이 2004년 1월 19일 동서발전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사랑의 복지 포인트’와 ‘사랑의 장터’ 등에서 조성된 성금 30,766천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2003년 7월 이용오 사장이 ‘사회공헌’을 사장 경영방침으로 천명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발전은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3월 중 ‘동서발전 사회봉사단’ 전사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봉사활동 유급 휴가제’, ‘사회공헌의 날’ 지정 운영, 신입사원 및 승격자에 대한 봉사활동 의무 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보다 왕성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원전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

-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기술이 해외 원전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키로 했다.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과 KOPEC의 정경남 사장은 13일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공동수행과 기술자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7개 분야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협력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원자력사업에 공동 진출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협력 △전문인력 교류 및 기술정보 교류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40년 동안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주기공급을 통해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설비의 기술자립을 이뤄 온 회

회원사 동정

사이며, KOPEC은 한국 표준형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로 계통설계와 발전소 종합 설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양사 모두 탁월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양사는 두산중공업의 제작 및 시공기술과 KOPEC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해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함에 따라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계획 중인 원전 건설 공사 수주에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중공업 김태우 전무(원자력BG장)는 “양사는 그 동안 1,000MW급 한국 표준형 원전 국산화, 1,400MW급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 원전 기술을 리드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단품수주에 머물렀던 해외 원전시장에서 대규모 턴키 프로젝트 수주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강원지역에 대규모 풍력개발 추진

- 제주 한경풍력에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도

남부발전은 최근 풍력자원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강원도 일원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 첫 단계로 지난 2월 13일 남부발전 및 태백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와 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발전회사 최초로 제주 한경풍력을 건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부발전은 20MW 용량의 제주 한경풍력에 이어 강원도 일대에 풍력 발전단지를 본격 개발키로 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 에너지원 확보 및 발전연료 다변화 전략을 경영목표로 추진, 향후 종합 에너지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작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태백시 귀내미골 및 영월 접산지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자원 측정탑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태백시 및 영월군과 3~4개소의 건설 가능입지에 대해 추가 협의 중으로 남부발전은 적정 입지가 선정될 경우 측정탑 설치 등 자원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강원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극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백시 관계자는 남부발전과의 대

규모 풍력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일대에 새로운 관광명소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등과 함께 국내 에너지산업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인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지구환경 보전과 미래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보급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신규 풍력사업 개발 확대를 위해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 등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 내부적으로 2011년까지 총 45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한국중부발전

미국 EPRI와 기술개발 MOU 체결

- 복합화력설비 고온부 부품 기술개발 공동 연구

중부발전은 2월 20일 캘리포니아 Palo Alto 에서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와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발전설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EPRI와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가스터빈 고온부 부품의 손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품을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공동연구와 복합화력 발전설비의 최적 운전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그 기술 사용권을 갖게 됨으로써 국내 복합발전기술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 내용에는 중부발전과 EPRI간 공동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력산업분야의 연구 및 기술지원협력,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개최, 각종 연구과제의 공동참여 등

전력기술 개발에 공동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전력연구원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1973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에 700여 개와 전 세계 150여 개 전력산업 관련 업체가 수·화력 발전 등 5개 분야에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부발전이 공동기술 개발에 참여함에 따라 국내 발전회사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부발전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의 국영 발전회사인 인도네시아파워사와 발전사업과 관련한 기술정보, 인력교류 및 발전 운영에 관한 기술협약을 체결해 발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꾀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

2004 노사합동 경영혁신 다짐대회 개최

- 기업생존 전략 차원의 혁신활동 추진

남동발전 기획조정처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주 일성콘도에서 전 사업소장, 자율혁신추진반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2004 노사합동 경영혁신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생존 전략 차원의 혁신활동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한 이번 다짐대회는, 경영혁신 활동에 노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결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날 행사는 혁신다짐 선서, 사장 특강, 2004년 회사 혁신방향 보고, 현장 혁신사례 발표에 이어 만찬을 겸한 '노사화합의 장'으로, 2일차는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통한 '도약과 협력의 장'으로 진행되었다.